

하기도 결정했다. 그때 처음으로 한의학파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신의 심적으로도 무난할 것 같았다.

별다른 인생목표를 정해두지 않았던 티라 친구와 함께 레보코로 생각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방송에서 허준의 일대기를 엮은 드라마가 인기라에 방영되고 있어 그러한 분위기도 일부 작용했다. 한의사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아버지에게 한의학과에 진학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후 며칠이 지나 아버지가 그를 불러, '손재주가 없어 공부대는 맞지 않으니 한의학을 공부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주셨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사이 아버지는 동네 한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현장체계를 해 보셨다. 이 원장을 처음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어머, 한의사 같지 않네요?' 하며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한의사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예전의 인식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한의외도 현대적으로 세련된 곳이 많고 한의사 중에서도 신세대가 많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원장은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가 한의사의 길을 택한 이유 중엔 이런 경직된 이미지를 깨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한의사같지 않은 한의사, 인식을 바꾼다

그래서 이 원장에게 방송출연 섭외가 왔을 때 그는 주저 없이 결정했다. 90년대 초부터 50여회 이상 방송에 출연하여 한의학의 경직된 이미지를 깨는데 노력했다. 그가 방송에 출연하게 된 건 이 원장이 들은 할머니와의 인연 때문이었다. 당시 증풍을 앓던 할머니를 6개월 정도 치료했는데, 한 번은 손지와 함께 왔다. 그 손지가 방송국 PD였고 며칠 후 그에게 방송출연 의뢰가 들어온 것이다.

그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전화를 해 왔다. 한의사가 결혼하려는데, 집안의 반대가 심해 이 원장이 출연한 방송을 부모님께 보여주었다니 하라하거리는 사연. 한의사로 키우기 위해 프로그램을 녹화해 하고한 수 할생 아들에게 보여주었다니 한의사가 멋있다는 한의학과에 진학해 지금은 이 원장의 후배가 되어 있는 사연 등 그는 한의사들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정화하는데 일조해 왔다. 그의 한의외에 들어시면 기존에 한의외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여지없이 무너진다.

아직 사람방같은 집수침구에서부터 열라미터를 타고 4, 5층에 오르면 따뜻하고 인력한 느낌의 진료실들이 자기 집에서 왕진 은 의사를 대하는 것처럼 편안함을 준다. 한의

완의 고유의 한의생태가 있고 깨끗하고 환한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다.

침술로 선수들의 체중 조절하는 스포츠한의학의 대가

이 원장의 전문분야는 척추관절과 보약클라나이다. 현재 전문한외사 3명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내과·이비인후과·비만 등을 담당하는 한의사와 증풍을 주로 진단하는 한의사가 부원장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 각각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원장은 스포츠한의학이라는 특별하고 독자적인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이 분야는 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는데, 국내에선 80여년간에 걸쳐 88서울올림픽을 지나면서 관심이 증폭되어 90년대 들어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원장은 해외의 화장을 맡아 이 분야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침술로 운동선수의 체중을 조절하는 비법을 갖고 있다. 단적인 예로, WBA 슈퍼페더급 챔피언에 오른 백종권의 승리는 그가 산파역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라이트급에서 한체급 밀린 슈퍼페더급으로 처음 뛰는 비람에 체중과의 싸움을 펼쳤던 백종권은 한계체중을 1.2kg초과한 상태였다.

이를 진단한 이 원장은 지방이 겨우 3.3kg(체중의 5.0%, 일반인은 15 ~ 20%)인 것을 알아냈고, 이 상태에서 체지방율을 2.0%까지 떨어뜨리는 침술을 시술하면서 동시에 체력 회복에 중점을 둔 식이요법을 제공해 백종권이 다스의 열세 속에서도 12회까지 후순을 발휘해 챔피언벨트를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다.

"이게 바로 스포츠한의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원장은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의학에 대한 인식과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을 보면 약사나 의사출신은 많은데, 한의사 출신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양상위주로 생각

